여름철 풍수해 대비 하수도 정비 총력

전주시 덕진구, 6월부터 우수시설 긴급 보수 · 준설 등 하수도 시설물 집중 점검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김봉정)는 집중호우와 태풍 등 여름철 풍수해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우기 전까지 하수관로와 우수받이 등 우수시설물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특히 구는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침수 피해 증가로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시가지 내 원활한 배수를 위해 본격적인 우기 전인 오는 6월부터 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구는 온고을로 화개네거리 일원과 온고을로 하나로마트 앞 네거리, 송천동 도매시장 일원, 백제대로(종합경기장~백제교) 등 12개 상습 침수지역과 주민 및 동 주민센터의 준설 요청지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우수시설 준설작업을 추진한다.

또한 구는 우수시설에 대한 정비가 완료된 이후에도 정기적인 시설점검을 실시하고,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현장 순찰 등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구는 집중호우 시 보행자의 맨홀 빠짐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약 1,000곳의 우수받이에 형광표지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김봉정 덕진구청장은 "우기철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하수시설을 선제적으로 점검하여 주민 불편과 재산 및 인명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하수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점검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사업 추진

6월 16일까지 참여 기업 모집… 총 4개사 선정 기업당 최대 4000만원 지원

시는 오는 6월 16일까지 수소 관련 기업을 수소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수소 관련 기업들을 발굴하고, 해당 기업들의 수소 분야에 대한 사업계획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미래를 이끌 수소전문기업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전주시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소재한 중소·중견기업 중 수소 산업 분야 관련 기술력(특허 등록) 또는 제품 매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단, 현재는 수소전문기업이 아니어야 한다.

시는 현장 실태조사와 선정평가를 거쳐 최종 4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인증 획득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기술 도입·보호 △연구 장비 활용 △시장조사 △디자인 개선 △BI·CI 개발 △홍보·전시회 등을 위한 사업비로 기업당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 신청은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을 통해 가능하며, 관련 공고문과 신청 서류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 누리집(www.kcarbo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삼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이 사업을 통해 수소 관련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을 발굴하고 육성해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수소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은 28일 송천동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안전하고 쾌적한 전주 만든다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송천동 사무실서 현판식 가져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단장 양해성)은 28일 송천동 도매시장 인근(송천동2가 597-14)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현판식에는 우범기 전주시장과 이병하 전주시의회 부의장, 자율방재단원, 인근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평소 모범적인 자율방재단 활동과 헌신과 노력을 바탕으로 안전한 전주를 만드는 데 기여한 5명의 단원이 각각 전주시장상과 전주시의회 의장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상을 수상했다.

특히 전주시 자율방재단은 지난 2008년 조직된 이후 처음으로 사무실을 갖게 된 만큼, 향후 단원 간의 소통 증대 및 재난 대응 역량 강화 등을 통해 보다 활발한 자율방재단 활동에 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해성 전주지 지역자율방재단 단장은 "창설 이래 처음으로 단원들과 밀접하게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사무실 개소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전주시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항상 지역안전과 주민을 위해 헌신하는 자율방재단의 보금자리가 마련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자율방재단 사무실을 기반으로 단원들이 더욱 화합하고 단결해 안전한 전주를 만드는 데 더욱 힘써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은 현재 35개 동에서 총 495명의 단원이 각종 재난 대비 예찰 활동과 복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은 28일 관내 돌봄이 필요한 가구를 위한 '덕진동 나눔밥상' 취약가구 제철 건강음식 지원행사를 가졌다.

전주 덕진동 통장협의회, 취약가구 건강음식 지원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동장 한의종)은 28일 관내 돌봄이 필요한 가구를 위한 '덕진동 나눔밥상' 취약가구 제철 건강음식 지원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덕진동 통장협의회의 후원을 바탕으로 관내 독거노인, 장애인 및 고립위험 1인 복지사각지대 가구를 위해 제철 건강음식을 지원하고자 기획되었으며, 이날 덕진동 통장협의회에서는 영양 가득한 불고기와 제철 식재료로 만든 김치 및 밑반찬을 직접 조리 후, 취약계층 50가구에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했다.

김금비 덕진동 통장협의회 회장은 "이웃의 건강을 챙기고자 메뉴를 엄선하여 정성껏 준비하였다"며 "앞으로도 이웃과 함께하는 동네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의종 덕진동장은 "지역사회가 함께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추진하여 따뜻한 동네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완산구 삼천2동 통장협의회는 지난 24일 경남 하동군 삼성궁, 전남 곡성군 장미축제 현장 등지에서 한마음 단합대회를 가졌다.

전주 삼천2동 통장협의회, 문화탐방으로 단합대회 가져

전주시 완산구 삼천2동(동장 배경남) 통장협의회는 지난 24일 경남 하동군 삼성궁, 곡성군 장미축제현장 등에서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통장들의 화합을 다지는 한마음 단합대회를 갖고 재충전의 시간을 보냈다.

이번 행사는 행정 최일선에서 시민과 행정의 가교역할로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헌신 봉사해온 통장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통장들의사기를 높이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박태희 삼천2동 통장협의회장은 "금번 문화탐방은 서로 간의 화합을 다질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앞으로도 시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경남 삼천2동장은 "주민들의 요구와 불편함 해소를 위해 애쓰는 통장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번 문화탐방을 계기로 화합하고 단합하여 살기 좋은 삼천2동을 만드는데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덕진소방서, 세계환경의 날 맞아 아중호수 정화활동 · 훈련 펼쳐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강동일)가 28일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수변정화활동을 하는 등 아중호수 및 인근에서 여러 활동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전주덕진소방서는 아중호수에서 대응예방과, 119구조대, 전주덕진의용소방대가 함께 참여해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산책을 하며 동시에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행사'를 진행하면서 수변정화활동을 실시 했으며, 아중호수 내 간이구조장비·인명구조함 등을 일제 점검 했다.

또한 119구조대와 수난전문의용소방대는 '수난사고 특별구조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아중호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수중 적응훈련, 중성부력, 인양절차, 부력조절 및 수중탐색법 등 진행 했다.

같은시각 대응예방과, 전주덕진의용소방대는 아중호수 인근 왜망실마을에서 '산림인접 마을 화재예방 캠페인'을 실시 했다. 캠페인은 봄철 산림 인근 지역 단독주택 및 들불 등 야외 화재로 인한 화재사망자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추진 했다.

강동일 전주덕진소방서장은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아중호수 정화활동을 진행하고, 수난사고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캠페인과 훈련을 진행했다"며 "재난 상황 발생시 적극 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